

## 묻지마 범죄의 특성과 유형: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박 지 선

경찰대학 행정학과

최 낙 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근 몇 년 간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자신과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소위 '묻지마 범죄'가 시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묻지마 범죄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상대방부터 누구라도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묻지마 범죄와 관련하여 학술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정의나 개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범행 동기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한 조사 역시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으로 나누어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묻지마 범죄의 유형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묻지마 범죄를 '현실불만형'과 '정신장애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현실 불만형'은 실직이나 경제적 빈곤 등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비판과 좌절로 인해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누적되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이다. 반면 '정신 장애형'은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이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형이다. 이처럼 묻지마 범죄의 원인 및 특성, 유형 분류를 통해,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향후 묻지마 범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묻지마 범죄, 사례 분석, 사회적 고립, 현실불만형, 정신장애형

---

\* 교신저자 : 최낙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Tel : 031-620-2558, E-mail : nb.choi@daum.net

2012년 8월, 의정부역에서 자신과 아무 연관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총 8명의 무고한 시민에게 중상을 입힌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채 열흘이 지나지 않아, 여의도 노상에서 칼을 휘두르며 자신의 전 직장 동료들 외에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을 특정한 동기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시민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처럼 명확한 이유나 목적 없이, 자신과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통상적으로 ‘묻지마 범죄’라 칭한다. 묻지마 범죄는 범행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전혀 일면식이 없는 상대방부터 누구라도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시급하다(박형민, 2013).

묻지마 범죄와 관련하여 학술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정의나 개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박형민, 2013). 따라서, 여의도나 의정부 사건과 같은 범죄를 지칭할 때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 외에 ‘이상동기 범죄’(고선영, 2012), ‘무동기 범죄’(김상균, 2012), ‘무차별 범죄’(박형민, 2013) 등의 용어가 서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들이 지칭하는 사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해자 선택에 있어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불특정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이를 바탕으로 한 특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범죄와 관련된 범죄자 특성, 범행 수법 등에 대한 연구가 적으나 존재해 왔다. 우선, 고선영(2012)은 2007년 1월-2012년 10월 사

이에 발생한 사건들 가운데 “범인과 피해자 간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범죄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피해자가 선택되었을 경우”(p.6)에 부합하는 사건 총 20개를 경찰청 과학적 범죄분석 시스템(SCAS: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을 통해 검색하고,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범죄자의 전형적 특성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으로, 무직이거나 경제력이 없으며, 친구가 없고 이성 친구도 없는 등 대인 관계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위축된 양상을 보인다(고선영, 2012). 더불어, 범행에서의 전형적인 특성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노상에서 시간에 구애 없이, 막연히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싶다는 목적으로 과도나 식도 등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다(고선영, 2012). 그러나 이러한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범행 당일에 검거되는 등, 범행 수법에 있어서 치밀함은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서울지방경찰청, 2012).

한편, 대검찰청(2013)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가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특정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의 일방적 의사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손괴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즉 살인, 상해, 폭행, 협박, 방화, 방화치사, 손괴 등”(p.8)으로 규정하고, 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55개의 사건을 대상으로 범죄자 및 범행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자는 30대(36%)의 무직(63%)이거나 안정된 직장이 없는 남성(98%)으로, 전과가 있으며(1회 이상이 76%, 그 가운데 2-5회가 35%), 음주 상태(55%)에서 칼(51%)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다. 또한,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는 여성(58%)이 많고,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대검찰청, 2013).

더불어 범행 특성을 보면, 묻지마 범죄는 8월(25%)에 서울(24%) 등 수도권(51%)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범죄자가 사전에 준비한 범행 도구를 휴대하여(53%) 주로 길거리(51%)에서 상해(52%)나 살인(32%)의 형태로 나타난다. 범죄의 동기는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44%)으로 인한 범행이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마약이나 알코올 등의 약물남용(31%)과 현실불만(25%) 순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13). 이를 종합하면, 묻지마 범죄는 주로 망상에 시달리는 정신 장애자나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 혹은 무직자 등의 사회적 소외 계층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검찰청, 2013).

이렇게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이나 범행 수법에 대한 연구들 외에, 묻지마 범죄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특히 범죄자들의 범행 동기와 심리적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윤정숙·김민지(2013) 연구에서 묻지마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을 여섯 가지(인지적 왜곡, 분노 표출 및 감정 조절의 결여, 대처 기술의 결여, 관계의 결여, 사회에 대한 반감, 정신 이상과의 관계 등)로 집약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우선, 묻지마 범죄자들의 경우 대인 관계에 있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고립된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고립은 범죄 발생 즈음하여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다(윤정숙·김민지, 2013). 즉, 일관적이지 못한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신체적, 심리적 학대 등

에 노출된 아이의 경우, 일차적으로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이는 향후 친구나 직장 동료 등 대인 관계 전반에서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경우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부족한 채, 타인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이유 없이 의심하고 적대감을 갖는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

대인 관계에서의 잦은 실패는 학교나 직장 등에서 해고나 낮은 평가 등 잦은 좌절 경험으로 이어지며, 좌절의 반복은 사회 전반에 대한 막연한 반감과, 부유층이나 사회지도층 등에 대한 적대감으로도 나타난다(윤정숙·김민지, 2013).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부정적 정서를 촉발하고 스트레스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중심의 합리적인 대처를 하기 보다는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거나,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분출하는 데 급급한 감정적 대처로 일관하게 된다(Buckley, Winkel, & Leary, 2004).

결국, 묻지마 범죄자들은 실직이나 이혼 등 촉발 요인이 있을 때 자신이 온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과잉일반화된 사고 등의 인지적 왜곡을 통해,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복수하고 싶다는 동기가 정당하고, 본인에게 그럴 자격과 이유가 충분한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데 이르게 된다(윤정숙·김민지, 2013).

본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대상의 선택에 있어 필연적인 인과 관계가 없이 불특정적이며, 폭력이나 살인 등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적대적인 의도로 저지른 범죄로 정의하였다. 범행의 대상이 불

특정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실패나 좌절의 원인을 막연히 사회 전반으로 돌림으로써 단순히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분노나 적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때로는 직장에서부터의 해고 등 분노의 원천이 비교적 명확한 상태에서, 그 특정 대상을 공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격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는 경우 또한 해당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향후 묻지마 범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궁극적으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 묻지마 범죄의 원인

### 사회적 원인

묻지마 범죄는 사회 전반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과열된 경쟁 속에서 경기침체가 이어져 고용 불안정이나 실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양문승·이훈재, 2008). 특히 경제 불황 속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질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가족의 해체로까지 이어지며,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비판이 자신과는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 즉 부유층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심화되어 때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 표출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박순진, 2003).

특히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도 극심한 저소득으로 인해 간신히 삶을 영위하는 수준에 그칠뿐더러, 오히려 대출 등으로 인해 빚만 늘어가는데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나 권력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진다(양문승·이훈재, 2008).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사회 전반에 대한 막연한 분노로 나타나 묻지마 범죄라는 극도의 폭력적인 양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역시, 묻지마(토오리마) 범죄를 단순히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범죄 발생의 배경에 경제적 불평등이나 청년 실업, 빈곤 등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도가시 스스무, 2011).

Wilson(1987)은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밀집된 도시 환경과 낮은 경제력이나 권력 등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고립 등을 꼽았다. 이 선행 요인들은 생리적 각성을 일으키고, 사고나 인지 체계에 영향을 미쳐 공격성을 높인다(Bernard, 1990). 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고립된 사람들이 밀집된 도시 환경에 집중적으로 거주할 경우, 서로 공격성에 취약하여 더 쉽게 생리적으로 각성되므로, 결과적으로 폭력이 증가하게 된다(Bernard, 1990).

### 개인적 원인

####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으며 고립된 생활을 하는 등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격려와 정서적인 지지가 결여된 양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사회로부터의 단절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좌절감이나 열등

감을 심화시키고, 범행 당시 해고나 실직 등의 좌절 경험으로부터 자존감을 지켜줄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공격성의 억제나 충동 조절 능력의 저하를 야기하여, 순간적인 분노나 화를 참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데 취약하게 만들기도 한다(Bernard, 1990; Gresswell & Hollin, 1994).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를 찾지 못한 채 우울과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으로의 침잠을 가속화시키게 되며, 이러한 악순환은 중국에는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Mawson, 1987).

#### 스트레스로 인한 판단력과 도덕성의 상실

현실에 대한 만성적 분노,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판 등으로부터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가 심화되면,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워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손상된다. 이러한 경우, 인간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사소한 사건이나 문제조차 그 심각성을 극대화시켜 생각하고,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박순진, 2003). 또한 반복적 실패나 좌절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고 통제력이 상실되면, 사회적 규범과 도덕에 대한 가치 체계에 혼란을 겪게 된다(Mawson, 1987).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전반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에 취약해지기 쉽다(김상균, 2012).

#### 자존감에의 위협

경제적인 수준이나 지위 등 사회 비교 상황에서 열등감과 실패를 경험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자아정체성에 혼돈이 오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와 우울, 불안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불특정 상대에

대한 폭력적 표출을 통해 무너진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김진혁, 2012).

특히, Felson(1982)은 인상 관리의 차원에서 공격성이 자존감을 회복시키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유지하려는 욕구는 공격성의 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자아존중감에 위협을 받거나 자아상에 타격을 입는 경우,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공격 행동을 통해 보복하려는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폭력적인 행동은 인상 관리를 위한 고의적인 공격이다(Felson, 1982). 박순진(2003)은 이를 ‘상호성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는데, 묻지마 범죄를 거듭되는 좌절과 실패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되었음을 느끼는 개인이 폭력의 분출을 통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증오를 드러냄으로써 상호성을 회복하려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보았다.

#### 외부 귀인(external attribution)

본인에게 닥친 일이나 주어진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를 나타내는 경향성을 지칭하는 귀인과 관련하여, 묻지마 범죄자들의 경우 자신에게 닥친 불행(예: 해고나 실직 등)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는 내부 귀인이 아닌 사회나 환경 탓을 하는 외부 귀인의 경향이 강하다. 즉, 자신에게 닥친 실패나 좌절의 원인을 타인이나 사회 탓으로 돌림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적대감을 자신과 연관도 없는 불특정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표출하는 양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박순진, 2003; 양문승·이훈재, 2008). 특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

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문지마 범죄자들의 경우, 자신의 실패나 좌절의 원인을 막연히 사회 전반으로 돌림으로써(박형민, 2013), 단순히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 인지적 합리화

피해자에 대한 비인격화를 통해 범행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완화시키고, 폭력을 표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합리화하는 범죄자의 인지적 과정 또한 문지마 범죄의 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Gresswell & Hollin, 1994). 즉, 범죄자의 분노를 일으킨 원인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지 접근 용이하고 유약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과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분노를 그 대상을 향해 표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합리화하는 인지적 절차의 개입으로 인해 가능해진다(Bernard, 1990).

### 범행 당시의 촉발 사건

대부분의 문지마 범죄자들의 경우 가정 폭력 등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온 좌절감이나 열등감을 기저로 하여, 범행 당시에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표출되게끔 하는 도화선이 되는 촉발 사건이 존재한다. Bernard(1990)는 이렇게 범죄자의 생리적 각성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나 상황을 가리켜 상황적 각성(situational arous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실직이나 경제적 위기, 이혼, 해고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분노와 적대감, 좌절이나 짜증 등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이러한 촉발 사건들은 문지마 범죄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Levin(1987)의 연구에서도, 삶에서 겪는 좌절이 장기화되고 실직이나 이혼 등의 촉발 사건이 있으며 총기류 등 흉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때, 고립 등으로 인한 사회적 통제력의 약화는 곧 무차별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 문지마 범죄 사례 분석 및 유형 분류

#### 문지마 범죄의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

문지마 범죄와 관련하여 학술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정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정확한 통계나 이를 바탕으로 한 특성 조사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지마 범죄의 유형 분류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주로 형사사법기관에서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문지마 범죄와 범죄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해 왔다.

대검찰청(2013) 연구에서는 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55개의 사건을 대상으로 범죄자 및 범행 특성을 분석한 결과, 문지마 범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현실불만형’, ‘정신질환형’, ‘약물남용형’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우선, ‘현실불만형’은 사회적으로 유대 관계가 부족하고 소외된 상태에서 실직이나 경제적 빈곤 등의 좌절 상황에 직면하여, 사회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범죄로 표출시킨 경우이다. 이러한 ‘현실불만형’은 빈부격차의 강화나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다. 다음으로 ‘정신질환형’은 주로 망상이나 환청 등의 증상으로 인해 자신과 아무 관

계없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유형으로, 정신분열증이나 우울 장애등의 정신질환이 가장 빈번하게 연관되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약물남용형’은 마약이나 알코올 등 남용 후 환각 상태나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이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형’이 4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약물남용형’이 31%, ‘현실불만형’은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수정(2013)은 “불분명한 이유로 비면식 관계의 피해자 1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p.16)를 문지마 범죄자로 규정하고, 대검찰청(2013) 연구에 포함되었던 55명의 범죄자들 가운데 18명을 대상으로 기록 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지마 범죄자를 다음과 같이 ‘반사회성’, ‘외톨이’, ‘정신장애’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우선, ‘반사회성’ 유형은 어린 시절 학대에 노출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직장 없이 주로 노동일에 종사하며 충동 조절에 결함을 가지고 있어 범법 행위 전력이 가장 많은 유형이다. 다음으로 ‘외톨이’ 유형은 어린 시절 가정에 큰 문제는 보이지 않고, 지능도 평균 수준이며 대부분 전과가 없지만,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이직을 자주 하는 특징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 유형은 어린 시절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지적 기능이 크게 떨어지며 망상적 사고가 두드러져 문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문지마 범죄 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는 문지마 범죄의 유형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문지마 범죄

사례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문지마 범죄를 다음과 같이 현실 불만형과 정신 장애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자 한다.

#### 현실 불만형

현실 불만형은 직장에서의 해고나 장기 실업, 경제적 빈곤 등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비판과 좌절로 인해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누적되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 2012년 의정부역 칼부림 사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2년 8월 18일 오후 6시 경, 1호선 의정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유OO(39세, 남)가 지하철 내부 바닥에 침을 뱉자, 같은 지하철에 탑승 중이던 두 명의 승객(박OO, 18세, 남; 박OO, 24세, 여)이 이를 나무라며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유OO가 격분하여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0cm)을 휘둘러 이들에게 중상(전치 2주-5주)을 입혔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반대편 승강장에 대기하던 사람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총 6명의 시민에게 추가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범죄자 유OO는 일용직(목수 일 등)에 종사하는 미혼 남성으로, 키는 160cm 정도에 몸집이 왜소한 편이다. 2006년 6월에서 2007년 4월 사이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에는 방문을 잠근 채 가족과 단절되어 지내던 상태였다.

유OO는 평소에 기독교나 천주교인들이 노

동 현장에서 중국인 노동자나 탈북자들을 도와주어 자신의 일감이 줄었다고 적개심을 품었는데, 이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괴롭힐 경우 위협하는 데 사용하려고 평소에도 공업용 커터칼 등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사례 분석.** 본 사건은 자신을 나무란 승객들 외에, 반대편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분명한 동기로 무차별적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유OO는 평소 방문을 잠근 채 가족과 단절되어 지낼 정도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회적 단절은 좌절감이나 열등감을 심화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촉발하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의 사소한 충돌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대처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Bernard, 1990; Gresswell & Hollin, 1994).

또한 유OO는 자신의 일감이 줄어드는 등 좌절을 경험하며, 이렇게 직업적, 경제적 위기라는 상황적 각성으로 인해 현실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심화된 상태였다(Bernard, 1990). 이 때 발생한 일상적인 사소한 언쟁에 대해 그 심각성을 극대화시켜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의 촉발 사건으로 작용하여 사회를 향한 막연한 반감을 묻지마 범죄라는 극단의 폭력성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표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박순진, 2003; 윤정숙·김민지, 2013).

한편, 자신과 언쟁을 벌였던 두 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인상 관리의 차원에서 무너진 자아존중감을 공격성의 표출을 통해 회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김진혁,

2012; Felson, 1982). 즉, 침을 뱉은 행위에 대해 자신을 나무라는 승객들로 인해 자아존중감에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체면을 차리고 보복하려 했다는 것이다(Felson, 1982). 특히 사회적 고립과 직업적 좌절 등 유OO가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묻지마 범죄라는 폭력의 분출을 통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증오를 드러냄으로써 상호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박순진, 2003).

### 2010년 잠원동 묻지마 살인 사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0년 12월 5일 오전 6시 30분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미국 뉴욕 주립대 중퇴생인 박OO(23세, 남)가 서울시 서초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칼싸움을 소재로 한 격투게임인 ‘블레이 블루’를 하던 중 패하자,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인 충동을 느껴 집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6.5cm)을 소매 속에 숨겨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다 교회 앞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김OO(남, 26세)를 보고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0m 가량 쫓아가 허벅지와 옆구리를 두 차례 더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박OO와 아무런 안면도 없는 관계로, 당시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 집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를 당하였다. 박OO는 범행 이후 흉기를 든 채 자신의 집으로 뛰어가다, 흉기를 소매에 숨기고 집으로 돌아가 흉기에 묻은 피를 씻은 후, 제자리에 놓고 태연히 잠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OO는 비행 전력이나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경찰 조사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몇 년 전으로 돌아가



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자 박○○(23세, 남)는 범행 당시 무직으로, 미국 뉴욕 주립대를 중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집에서 지내며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상태였다. 박○○의 집안은 중산층에 속하였는데, 연구원인 아버지와 회계사인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고, 여섯 살 때까지 미국에서 생활하였다(이수정, 2013). 고교시절 교사들은 박○○가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강남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였으나, 자신이 바라던 대학의 법학과 진학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타 대학 법학과를 다니다가 1년 만에 그만두고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뉴욕 주립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였다. 그러나 친구를 전혀 사귀지 못하는 등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할머니가 미국으로 가서 도움을 주었지만 3학년 재학 중에 포기하고 2009년 6월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귀국한 이후, 연락하고 지내는 학창시절 친구들이 거의 없었으며, 담배를 살 때를 제외하고는 집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다.

범행 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이 박○○를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출석을 거부하여 결국 범행 10일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되었다. 현장 검증 당시 “죽이고 난 뒤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졌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몇 번이고 더 찔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 후 후회한 적이 없다”, “검거가 안 되었더라면 추가 범행을 했을 수도 있다”는 등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에 장애가 없었으나, 다만 충동의 발생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분석.** 본 사건은 게임에서 패하자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인 충동을 느껴 저질렀다는 범행 동기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길에서 처음 본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피해자 선택에 있어 필연성이 결여된 채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로 저지른 문지마 범죄이다. 박○○는 대학을 중퇴한 미혼 남성으로, 무직이며 친구가 없고 이성 친구도 없는 등 전형적인 문지마 범죄자의 특성을 드러낸다(고선영, 2012). 또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노상에서 시간에 구애 없이, 막연히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문지마 범죄의 전형적인 범행 특성 또한 나타내고 있다(고선영, 2012).

본 사건의 원인으로 첫째, 사회적 고립을 들 수 있다. 박○○는 연락하고 지내는 학창시절 친구들이 거의 없었으며, 미국 유학 시절에도 친구를 전혀 사귀지 못했고, 대학 중퇴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집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단절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입시에서의 실패와 유학 생활을 포기하고 돌아온 좌절로 인해 야기된 부정적 감정을 가속화시키고, 충동 조절 능력의 저하를 야기하여, 결국 게임에서 패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Bernard, 1990; Gresswell & Hollin, 1994).

또한 범행 당시 유학 생활에 실패하고 귀국하여 게임 중독으로 지내다가, 현실에 대한 만성적 분노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판단력이 손상된 상태로 보인다. 또한 이렇게 사회적 열등감이 심해지면, 불특정 상대에

대한 폭력적 표출을 통해 무너진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김진혁, 2012).

특히 본 범죄자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는 등 도덕적 가치 체계의 혼란과 판단력의 상실을 드러내고, 형사사법기관과의 계속적인 접촉에서도 사회에 대한 불만과 증오를 표출시킴으로써, 범행 이후까지도 일관적으로 무너진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나타냈다고도 볼 수 있다(Felson, 1982; Mawson, 1987).

### 2010년 신정동 문지마 살인 사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0년 8월 7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인 윤OO(33세, 남)가 다가구주택 옥탑방에 침입하여, 장OO(41세, 여)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남편 임OO(42세, 남)를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윤OO는 그 날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자 평소 작업할 때 쓰는 망치와 과도(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등 흉기가 든 배낭을 메고 양천구 일대를 배회하다가, 저녁 6시 경 신정동 소재 한 놀이터에서 막걸리 1병을 마셨다. 그러다가 맞은편에 위치한 옥탑방에서 일가족의 행복해 보이는 웃음소리가 들리자, 불우한 자신의 처지와 비교되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옥탑방으로 침입하여 거실에서 TV를 보던 장OO(42)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한 뒤, 비명을 듣고 안방에서 나온 남편 임OO(42)의 배와 옆구리를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윤OO는 강도강간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0년 5월 출소한 상태였다. 출

소 뒤 갱생보호소에 입소해 공사장 등의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해 왔으나, 서툴다는 이유로 일이 잘 들어오지 않던 상황이었다.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진 사실을 모르고, 범행 당시 입던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윤OO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일용직 외에 선택의 기회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사회 탓으로 돌려 적개심을 키우고 있었다. 수사 당시 “나는 세상을 어렵게 살고 방황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산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 격분했다”<sup>1)</sup>, “전과자를 보는 시선이 따갑고 취직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 처지를 비판하고 있었다”<sup>2)</sup>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자신도 행복해지고 싶었으며,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사례 분석.** 가정에서 나는 행복한 웃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처지와는 비교되어 살인을 저지른 본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가 비상식적이며 범행 대상도 불특정적인 문지마 범죄에 해당한다. 본 범죄의 원인으로 첫째, 일용직 외에 선택의 기회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사회 탓으로 돌려 적개심을 키운 외부 귀인 성향을 들 수 있다. 즉, 강도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전과자가 되어 직업 선택의 기회가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

- 1) 한국일보 ‘신정동 ‘문지마 살인’ 피의자 사건 한 달 만에 검거’ 2010년 9월 12일자(<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009/h2010091215360321950.htm&ver=v002>)
- 2) 국민일보 “난 불행한데 넌 행복해” 증오살인 충격’ 2010년 9월 12일자(<http://m.kukinews.com/view.asp?gCode=news&sCode=soc&rcid=0004109427&code=41121111>)

한 비판을 막연히 사회 탓으로 돌림으로써 자신과 연관도 없는 불특정한 사회구성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표출하게 된 것이다(박순진, 2003; 양문승·이훈재, 2008).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실패의 원인을 막연히 사회 전반으로 돌림으로써(박형민, 2013), 단순히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합리화하는 인지적 절차가 개입되었다(Bernard, 1990). 이러한 점은 교도소 면담 당시 자신의 범행의 원인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우했던 가정 환경과, 전과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 체제로 인한 것임을 역설했던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이수정, 2013, p.323). 이 외에도, 출소 이후 가족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등 정서적 지지가 결여되고 대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일거리를 구할 수 없는 등 반복되는 좌절에 공격성 억제 및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공격성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Bernard, 1990; Gresswell & Hollin, 1994).

#### 2009년 정읍 묻지마 살인 미수.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09년 11월 30일 정읍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오전 8시 경 이OO(42세, 남)가 정읍시 OO아파트 주변 인도에서, 길을 지나던 황OO(78세) 등 4명의 시민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한 동네에 거주하는 60-70대 노인들로, 범죄자 이OO와는 모두 아무런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OO는 평소 인간 자체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던 중, 많은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며,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하였다.

이OO는 11월 중순에 길이 20cm, 너비 12cm가량의 가축 도축용 식칼을 구입한 뒤, 칼날을 분리하여 나무자루(72cm)에 끼워 넣어 흉기를 제작하였다. 이외에도 낫 등의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 당일인 11월 30일 오전 8시 경, 길을 지나던 박OO(63세, 남)의 머리와 어깨 등을 흉기로 여러 번 내리쳤다. 피해자가 도망가자 곧바로 노상에서 만난 신OO(61세, 여)의 머리를 흉기로 가격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황OO(78세, 남)를 발견하였다. 그 사이 신OO가 도망가자, 황OO의 머리와 상체 등을 흉기로 여러 번 가격하여 쓰러뜨렸다. 이 때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이를 목격한 이OO(59세, 남)가 차에서 내리자, 머리를 내리치던 중 이OO는 도망가고, 가해자 이OO는 범행 후 인근 주택에 숨어 있다가 검거되었다.

가해자 이OO는 서울 명문 사립대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범행 당시 미혼이었다. 정읍시 소재 OO병원에서 청소원으로 일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 일정한 직업 없이 취업, 퇴직, 개업, 폐업을 반복하다가 2008년 고향으로 귀환 후 은둔 생활을 해 왔다. 평소에도 깨끗하게 사는 동물에 비해 인간은 더러운 것만 저지른다는 등 인간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보였으며, 범행 후에도 죄책감 등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유사한 범죄를 반복할 것이라는 의사를 나타내었다.

**사례 분석.** 본 사건은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아무런 안면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범행 동기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대상이 불특정적인 묻지마

범죄에 해당한다.

본 범죄자의 배경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서울 명문 사립대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청소원으로 일하는 등 학력과는 맞지 않는 일에 종사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전전하다가 고향으로 귀환 후 은둔 생활을 해 왔다는 점이다. 즉, 퇴직이나 폐업을 반복하는 등 직장에서 잦은 좌절 경험을 하고, 범행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좌절의 반복은 인간은 더러운 짓만 저지른다는 등 인간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진술처럼 안면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시키는 데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정신 장애형

정신 장애형은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이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형이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정신 질환자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범죄가 모두 정신 질환자의 소행이거나 정신 장애의 결과는 아니라는 점이다. 즉, 모든 정신 장애자를 잠재적인 묻지마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단순히 정신 장애를 범죄의 원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신 장애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나 만성적 적대감 등 관련 변인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2008년 홍제동 묻지마 살인 사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08년 8월 15일 16시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초등학교 정문 밖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당시 무직인 김○○(25세, 남)가 행인 오○○(남, 41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가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범행 전 김○○은 ‘누군가 죽이고 싶다’, ‘오늘은 누군가 나한테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집 근처 동네 가게에서 흉기(칼: 칼날길이 20cm)를 구입하였다. 구입 후 귀가하여 가방에 칼을 넣고, 도주의 용이성을 위해 운동화로 갈아 신었다. 그러고 나서 집에서 약 300m가량 떨어진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원래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수위를 살해할 목적으로 다가갔으나, 학교 수위와 눈이 마주쳤으며 주위에 여학생들이 보고 있어 포기하고, 지나가던 남성을 살해했다고 후에 진술하였다. 범행 후에는 집으로 도주하여 피가 묻은 흉기를 씻고,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함께 방안에 숨겨 두었으며, 범행 후 3일 동안 집밖에 나가지 않았다. 결국 사건 발생 3일 후인 18일 오후 8시 30분경, 군복을 입고 외출한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무덤덤한 태도로 범행을 자백하였다.

김○○은 2001년 한 기능대학 1학년을 중퇴하였다. 과거 할머니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여동생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 상처를 입힌 적이 있었으며,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석 달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진단명은 ‘피해망상성 정신분열증’이었다. 부모는 어려서부터 정신 병력이 있는 가해자 때문에 칼 등 흉기로 사용할만한 도구들은 모두 집에서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시절 정신분열 및 우울증 증세로 인해 정신 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으며, 대학 중퇴 후 집에서만 틀어박혀 지냈다. 이 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사실로 인해 사람들에게 대해 불만과 증오심을 가졌다고 후에 진술하였다. 또한,

2002년 공익근무 당시 상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부모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귀가하여 김○○는 주로 혼자서 집에서 생활하였다. 그는 애인이나 친구 등 대인 관계가 전혀 없으며, 인터넷, 휴대전화 등의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사례 분석.** 본 사건은 ‘누군가 죽이고 싶다’, ‘오늘은 누군가 나한테 죽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숨지게 한 묻지마 사건이다. 본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그가 겪었던 정신 장애를 들 수 있다. 즉, 김○○는 이미 2002년과 2004년에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으며,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는 ‘피해망상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사실로 인해 사람들에게 대해 불만과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적개심을 2002년 공익근무 당시 상사들에 대한 폭력 행사로 표출한 바 있다. 그가 대인 관계가 전혀 없으며, 인터넷, 휴대전화 등의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주로 혼자서 집에서 생활하는 등 사회적으로 단절된 것도 이러한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원호택 · 이훈진, 2009).

**2008년 양구 묻지마 살해 사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08년 4월 26일 저녁 8시 경, 강원 양구에서 무직인 이○○(36세. 남)가 산책로에서 운동 중이던 여고생 김○○(18세. 여)를 흉기로 십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습격을 당하던 중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이○○는 듣지 않았다. 후에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세상이 더러워서 아무나 죽이고 싶었다. 그냥 누구나 죽이

고 싶었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sup>3)</sup>라고 진술하였다.

범행 직전, 상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칼(칼날 길이 8cm)을 구입하고, 목장갑을 낀 채로 공원 산책로 의자에 앉아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지나가던 여고생 2명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김○○(18세. 여)양을 붙잡고 가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십여 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범행 후, 이○○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 묻은 옷을 입고 현장 벤치에 앉아 있다가 검거 되었다.

이○○는 범행 당시 무직으로, 범행 전까지 공공근로 일용직에 종사하였다. 정신지체 3급으로, 초등학교 이후 주기적 간질 발작을 보여 왔다. 1997년 환청 등의 증상으로 3개월간 입원한 적이 있고, 2002년 이후에도 정신과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2007년에는 정신병원에 40여 일간 강제입원 후 퇴원한 전력이 있다.

**사례 분석.** 본 사건은 “세상이 더러워서 아무나 죽이고 싶었다. 그냥 누구나 죽이고 싶었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는 그의 진술처럼, 불분명한 동기로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살해한 묻지마 사건이다. 본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역시 범죄자가 겪었던 정신 장애를 들 수 있다. 즉, 그는 1997년 환청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2년 이후에도 정신과에서 상담 치료를 받았으며, 2007년에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등 오랜 정신 병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신 장애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3) 한국일보 ‘운동하던 여고생 ‘묻지마 살인’ 30대 검거’ 2008년 4월 27일자(<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4/h2008042709360921980.htm>)

십여 차례나 찢러 살해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문지마 범죄 사례 종합 분석

먼저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비판과 좌절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누적되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 불만형’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정부 사건에서 일감이 줄어 직업적 위기를 겪어 있던 점이나, 잠원동 사건에서 원하는 국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후 미국 유학에서도 실패했던 점, 신정동 사건에서 출소 후 일용직으로 일했으나 미숙함으로 인해 일이 잘 들어오지 않던 점, 정읍 사건에서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무직이었던 점 등 범죄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의정부 사건에서 평소 방문을 잠근 채 가족과 단절되어 지내던 상태라는 점이나, 잠원동 사건에서 유학 실패 후 귀국하여 친구들이 거의 없고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던 점, 신정동 사건에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가족들에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또한 정읍 사건에서 은둔 생활을 해 오던 점 등 모두 사회적으로 대인 관계가 거의 전무한 채로 고립되어 있었던 점이다.

다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이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신 장애형’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한다. 즉, 홍제동 사건의 범죄자가 ‘피해망상성 정신분열증’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또한 양구 사건에서도 범죄자가 환청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7년에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등 오랜 정신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다. 이러한 정신 장애는 불분명한 동기로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문지마 범죄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논의 및 결론

#### 요약 및 정리

본 연구에서는 문지마 범죄를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대상의 선택에 있어 필연적인 인과 관계가 없이 불특정적이며, 폭력이나 살인 등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적대적인 의도로 저지른 범죄로 정의하고, 문지마 범죄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우선, 문지마 범죄 발생의 원인은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용 불안정, 실직 등의 사회적 배경으로, 특히 경제적 양극화가 두드러질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비판이 사회 전반에 대한 막연한 분노로 나타나 문지마 범죄라는 극도의 폭력적인 양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사회적 고립과 자아 존중감에의 위협, 스트레스로 인한 판단력과 도덕성의 상실, 인지적 합리화나 외부 귀인, 범행 당시 촉발 사건 등 문지마 범죄의 개인적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문지마 범죄 사례들을 분석하고, 문지마 범죄의 유형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그 유형을 ‘현실 불만형’과 ‘정신 장애형’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우선 ‘현실 불만형’은 직장에서의

해고나 장기 실업, 경제적 빈곤 등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비관과 좌절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누적되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인 반면, ‘정신 장애형’은 망상이나 환청 등 정신 질환이 묻지마 범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이다.

#### 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

우선, 묻지마 범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범행 당시 범죄자가 가족 등 주변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친구 등의 대인 관계도 거의 없는 등 사회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사회적 고립은 부정적 정서를 촉발하고 스트레스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며,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력적인 표출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Buckley, Winkel, & Leary, 2004). 따라서, 이러한 극단적 폭력의 표출을 막기 위해 가족이나 이웃 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대인 관계 기술과 분노 조절 능력,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 기술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윤정숙 · 김민지, 2013). 특히 미국에서는 학교나 직장 등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적절한 대처를 통해 분노를 조절하고 공격 충동을 해소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학교 내 폭력(bullying)의 방지를 위해 갈등 해결 프로그램 등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을 교육하고, 직장 내에서도 동료나 상하 관계에서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이나 중재 관련 서비스를 지원한다(노성훈, 2012). 이처럼, 묻지마 범죄의 예방을 위해 가족이나 이웃, 학교나 직장 등 사회 전반에서

고립된 개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가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극단적 공격성의 표출을 방지하고 문제 중심적 대처를 하는 관리 기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묻지마 범죄자들의 경우 자신에게 닥친 실패나 좌절의 원인을 타인이나 사회 탓으로 돌리는 외부 귀인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연관도 없는 불특정한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표출하는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박형민, 2013). 따라서, 본인에게 닥친 부정적 결과나 실패의 원인을 무조건 외부에서 찾아 “모든 것은 사회 탓이니 어쩔 수 없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등의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교정할 수 있도록, 인지 행동 치료(CBT: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s)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초에 ‘묻지마’라는 용어는 범행에 대한 동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 범죄자가 해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범죄자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국민들로 하여금 무방비 상태에서 언제 어디서라도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통제 불능으로 확산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양문승 · 이훈재, 2008; 정연대 · 이운호, 2013; Best, 1999).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이나 언론에서 ‘묻지마 범죄’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시정 혹은 권고 조치하는 노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

본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의 유형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묻지마 범죄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유형 분류를 위해 그 원인과 특성을 분석한 사례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향후 보다 많은 수의 묻지마 범죄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 분류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정의 아래 ‘묻지마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선별하고, 각 사건에 있어 범죄자 배경 특성과 피해자 특성, 범행 특성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후, 국내 묻지마 범죄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범행 동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범행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범죄자 배경 특성의 차이점을 분석한다면, 향후 범죄자 유형별로 보다 체계적인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고선영 (2012).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 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1(4), 3-28.

김상균 (2012). 무동기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7(2), 195-219.

김진혁 (2012). 묻지마 범죄의 유형 및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8(3), 113-131.

노성훈 (2012).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일본,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가능한가?: 국민 공공안전향상 종합대책 정책토론회 발표논문집*. 서울: 한국교통연구원.

대검찰청 (2013). 묻지마 범죄 분석. 서울: 대검찰청

도가시 스스무 (2011). 일본의 이상동기 범죄.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학술세미나. 서울: 서울지방경찰청

박순진 (2003).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206-235.

박형민 (2013). 무차별 범죄(Random Crime)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0, 225-258.

서울지방경찰청 (2012). 이상동기 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연구: 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서울: 서울지방경찰청

양문승·이훈재 (2008). 증오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원광법학*, 24(4), 167-199.

원호택·이훈진 (2009). 정신분열증. 서울: 학지사.

윤정숙·김민지 (2013).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리적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9(1), 147-174.

이수정 (2013). 묻지마 범죄자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적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 대검찰청

정연대·이운호 (2013). 묻지마 범죄담론의 사회적 구성과 영향: 묻지마 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접근. *한국경찰연구*, 12(1), 213-246.

Bernard, T. J. (1990). Angry aggression among the “truly disadvantaged”. *Criminology*, 28(1), 73-96.



- Best, J. (1999). *Random violence: How we talk about new crimes and new victim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uckley, K. E., Winkel, R. E., & Leary, M. R. (2004).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nses to interpersonal rejection: Anger, sadness, hurt, and aggres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14-28.
- Felson, R. B. (1982). Impression management and the escalation of aggression and violen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5*(4), 245-254.
- Gresswell, D. M., & Hollin, C. R. (1994). Multiple murder: A review.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4*, 1-14.
- Levin, J. (1987). Why his last shot blew the truth away. *The Sunday Times, 23*(Aug), 23.
- Mawson, A. R. (1987). *Transient Criminality: A Model of Stress-Induced Crime*. NY: Praeger.
- Wilson, W. 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 차원고접수 : 2013. 10. 28.  
심사통과접수 : 2013. 11. 11.  
최종원고접수 : 2013. 11. 18.

##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nonspecific motive crime

**Jisun Park**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NakBum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fear of 'nonspecific motive crime' in which offender's motivation is obscure and victims are randomly selected. Especially, not only the fact that victims are targeted by a perfect stranger for no specific reasons, but also the notion that nonspecific motive crime is expected to increase for a while, exacerbate the public's fear. However, widespread agreement upon the academic definition or conceptualization of 'nonspecific motive crime'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Furthermore, detailed statistics of its occurrence have not been identified yet, and only a little research about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features of offenders has been conducted. Therefore, the present study first aimed to examine various causes of nonspecific motive crime, including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surrounding the offender. Based on these factors, the present study reviewed several nonspecific motive crimes that occurred in South Korea for recent years. The present study also differentiated nonspecific motive crime into two types - 'the social discontent' and 'the insane' - by analyzing the common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ses. 'The social discontent' refers to offenders who committed crime as their expression of accumulated frustration, dissatisfaction, or anger with the present state of the society, mostly derived from one's difficult situations, such as loss of employment or poverty. On the other hand, 'the insane' refers to the offenders who committed crime mainly because of their mental disorder, such as paranoid schizophrenia and depression. By analyzing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ting them into types, the present study eventually seeks ways of systematically preventing nonspecific motive crime. Finally,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made.

*Key words : nonspecific motive crime, case analysis, social isolation, the social discontent, the insane*